

판소리 <적벽가>를 들으면서 함께 읽을 삼국지

지금부터 읽게 될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지혜를 담은 소설’이라고 광고되고 있는 《삼국지》의 수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알려지지 않은 축에 속할 것이다. 언젠가부터 몇 번째로 《삼국지》를 읽고 있는지 셈하기를 포기한 나도 이 에피소드를 의식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된 일이 아닐 정도니까.

글_최윤구

아내를 죽여 그 고기로 유비를 대접한 유안

제갈공명을 군사로 맞이하기 전까지 착실하다고 하고 싶을 정도로 늘 전투에서 졌던 유비가 여포에게 쫓길 때가 배경이다. 적군을 피해 가신 손건과 함께 산 속을 헤매던 유비는 유안(劉安)이라는 젊은이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다. 친하에 이름 높은 유비에게 대접할 것이 없던 유안은 아내를 죽여 그 고기를 바친다. 물론 유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사람 고기를 배불리 먹고 달게 잠을 잔다. 이튿날 새벽에 길을 떠나다 유비는 부엌에서 젊은 여인의 사체를 발견하고 간밤에 먹은 고기의 정체를 깨닫게 된다.

설마 천 년도 더 전에 매력적인 식인 살인마가 등장하는 걸 보니 《삼국지》는 역시 시대를 초월해 첨단을 달리는 ‘현대적인’ 소설이라고 할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 혹시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길. 이 사건의 결말은 그런 기대를 아주 간단하게 배신한다.

유현덕은 매우 감동하여 눈물을 씻으며, 말에 올라타자,

“유안아,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려느냐?”

하고 묻는다. 유안은 고한다.

“어디까지나 주공을 모시고 싶사오나, 늙은 어머니가 계시므로 멀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중략)

유현덕은 또 유안이 아내를 죽여 그 살로 음식을 만들어주던 일을 말했다. 조조는 손건을 시켜 황금 백 냥을 유안에게로 보내줬다.

아내를 죽여 그 고기로 유비를 대접한 유안은 살인죄로 처벌받기는 커녕 유비가 몸을 맡기고 있던 한나라의 승상 조조로부터 상을 받는다. 《삼국지》가 얼마나 봉건적인 서사시인지를 이처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데 에피소드는 이 기나긴 소설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시대에 서민의 아내란 유비 같은 대덕(大德)이 찾아오면 남편의 손에 죽어 그 고기를 바쳐야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남편도 만 명의 사내를 능히 상대하는(萬夫不當) 영웅호걸들이 우글거리는 전장에서는 별다른 바 없는 처지였다. 유안의 처가 유비로 대표되는 봉건 귀족들의 육체적 수명을 위해 잡아 먹혔다면, 유안 같은 평민은 이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전장에서 소비되었다. 《삼국지》는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물론 이 에피소드 하나로 《삼국지》라는 문학 작품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것은 문화사적인 카니발리즘일 것이다. 몇 백 년이 넘도록 한자 문화권 독자들을 매료시켜 온 이 소설에는 비록 사람고기를 먹긴 했지만 백성을 제 몸처럼 아끼는 이상적인 군주로서의 유비라든가, 고식적인 유교 이데올로기가 아닌 사적인 의리와 사내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전장을 누비는 군신(軍神) 관우, 너무나도 명백한 국력의 차이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제갈공명의 불굴의 정신 같은, 시공을 뛰어넘어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유비가 오랫동안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가지 않아 살찐 자신의 허벅지를 보고 탄식하는 비육지탄의 고사 같은 대목에서 나는 파블로프의 불쌍한 개처럼 반사적으로 남편의 손에 죽어 유비의 허벅지가 살찌는데 그 고기를 보탠 유안의 처가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제재로 삼은 판소리 <적벽가>

초등학교 때 어린이들을 위한 다이제스트 형태로 나온 것에서부터 시작해 고우영의 만화 《삼국지》까지 술한 《삼국지》들을 읽어 왔지만 비명에 죽은 유안의 처가 내 마음에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준 삼국지는 없

었다.

그러다가 나는 <적벽가>를 만났다.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하나인 <적벽가>는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제재로 삼았지만 민중들의 애환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리고 민중이 지나간 중국 역사에서도 이름난 대전으로 손꼽히는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조조 측 병사들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적벽대전 전날 밤 조조의 병사들이 신세한탄을 하는 '군사 설움 대목', 전투에서 죽은 병사들이 새로 환생하여 조조를 원망하는 '새타령' 등은 왜 판소리가 대표적인 '민중예술' 인지를 다시는 잊을 수 없도록 듣는 이의 마음에 아로새겨 줄 것이다.

아무리 재해석을 해본들 《삼국지》란 텍스트는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조조, 여포 같은 영웅호걸들의 이야기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세계에 유안의 처 같은 약자들에게 구원이란 없다. 그러나 우리 것이니까 좋은 것이다, 라는 어딘가 아귀가 맞지 않는 논리의 비호를 받는 '전통예술', 판소리 <적벽가>는 민중들을 전면에 내세워 우리가 철석같이 서양 근대의 발명이라고 믿고 있었던 '반전' 사상을 봉건 서사시 《삼국지》에서 구현해 냈다.

제갈공명과 주유 같은 천재들이 자기들을 불질러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칠푼 밤도 못 치르고 고향에 남겨두고 온 새색시가 보고 싶어서 눈물짓는 사내들이 득시글거리는 것이 <적벽가>의 세계다. 이런 곳에서라면 하고 많은 유안의 처들은 행여나 유비 같은 대덕이 제 집 사립문으로 들어서지나 않을까 마음 조이며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시중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음반은 <적벽가>로는 인간문화제가 된 '박동진 명창'의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CD를 만드는 곳이 몇 안 될 때 의욕적으로 CD 사업을 펼쳤던 SKC에 의해서 일찌감치 CD로 나왔던 음원이다. 몇 번인가 음반사를 옮겨가며 절판과 폐반을 거듭하다가 얼마 전 재발매 됐다.

《삼국지연의》자료를 바탕으로 저술한 《정사, 삼국지》



《정사, 삼국지》
(전4권) 진수 지음
김원중 옮김
민음사 | 값 110,000원

민음사에서 나온 《정사, 삼국지》는 소설 《삼국지연의》의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가인 진수가 저술한 역사서의 완역본이다. 국내 최초로 이 책을 완역했던 김원중 교수의 노작이다. '그는 키가 8

뼘 척이 넘었고' 같은, 책임소재가 번역자가 아닌 편집부에 있는 잘못된 문장이 수시로 출몰하는 초판본을 말씀하게 손봤다. 처음 선보였던 신원문화사 판본과 민음사 판본 어디에도 유안과 그의 처와 관련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다음에 소개할 이나미 리츠코나 김상엽의 책에서 친절하게 유안의 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소설의 창작이라고 알려주지만 사실 여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원전을 읽는 보람일 것이다. 만듦새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편집이

나 장정이 좋은 것도 장점이다. 오랫동안 삼국지 마니아들 사이에서 콜렉터즈아이템이었던 구판에 비하면 호사스럽기까지 하다.

이나미 리츠코의 《삼국지 깊이 읽기》



《삼국지 깊이 읽기》
이나미 리츠코 지음
김석희 옮김 | 작가정신
238쪽 | 값 10,000원

중국사의 시오노 나나미라고 불리우는 이나미 리츠코의 《삼국지 깊이 읽기》는 수많은 《삼국지》 해설서 가운데서도 돋보이는 책이다. 237쪽이라는 결코 두

겹지 않은 분량이지만 저자는 누구보다도 《삼국지》를 '깊이' 읽고 있다. 필요한 정보를 촌철살인적인 짤막한 평으로 전달하는 그녀의 서술방식은 그야말로 대가의 솜씨다. 그 자신은 특출난 재주를 가지지 않았지만 바로 그런 무색무취한 개성 때문에 무에서는 관우, 문에서는 제갈공명 같은 인물들로부터 절대적인 충성을 받았던 유비를 '텅 빈 중심'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의 '깊이 읽기'는 절정에 이른다. 진수의 《삼국지》에서 이 역사책에 배송지가 붙인 주(註), 민중설화에 가까운 《삼국지 평화》에서 《삼국지연의》로 달하는 과정이 간결하지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 책은 같은 저자의(출판사도 같다) 《인물 삼국지》와 같이 읽는 편을 권하고 싶다.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삼국지를 보다》



《삼국지를 보다》
김상엽 지음 | 루비박스
327쪽 | 값 15,800원

김상엽의 《삼국지를 보다》는 술하게 나와 있는 《삼국지》 관련 서적 가운데에서

도 독특한 위치에 있는 책이다. 인물이나 역사에 관한 해석은 저자 스스로가 밝히는 것처럼 '열혈 애독자'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가 아니라 어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저자의 전공인 미술이 빛을 발하는 5장 '삼국지와 그 그림들'에 있다.

이 책은 국내에 나온 그 어떤 《삼국지》 관련 서적보다 풍부한 도판을 싣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지만 이 장에서 그야말로 쏟아지다시피 하는 그림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이전까지의 페이지들은 5장을 위한 예고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이다. 수백 년 동안 《삼국지》라는 소설에 울고 웃은 중국, 한국, 일본의 삼국지 관련 그림들을 다룬 이 장으로 인해 이 책은 미술학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삼국지라는, 앞으로도 쉽게 오르기 힘든 봉우리를 선점하고 있다. 아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가스씨가 다이토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책은 내가 아는 한 이 책이 유일하다. **추천**

최윤구 님은 <월간 코다> <조이클래식> <월간 오디오> <What hi-fi> 등에 음반평론을 기고하고 있으며, 국민대에 출강하고 있다.